

5·18역사 왜곡에 대한 고찰*

-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 희 송**

국문초록

이 글은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분석을 통해 5·18역사 왜곡의 논리와 근거를 살피고 5·18역사 왜곡 담론이 갖는 논리적 모순점을 규명했다. 『역사로서의 5·18』은 2013년 출간이후 일간베스트 등 5·18역사 왜곡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로서의 5·18』은 5·18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통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밝힌 객관화의 근거는 80년 당시 신군부의 5·18담론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5·18사태는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들의 거짓 선동과 북한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며 제시한 근거 자료의 대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였다. 『역사로서의 5·18』을 비롯한 5·18역사 왜곡 담론의 문제점은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료에 대한 조작을 통해 5·18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왜곡·편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심어 : 5·18항쟁, 5·18담론, 5·18역사 왜곡

I. 문제제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 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

* 이 논문은 5·18기념재단의 지원(2013년)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5·18 희생자 유족께 용서를 구합니다.

상기 본인은 '디시인사이드' LG트윈스 갤러리에서 '송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의 게시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및 유족분들, 참가자분들 등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바, 그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께 사과하며 그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합니다(5·18왜곡·뺨뺨로 고소된 피의자가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반성문, 2014.7.10.).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5·18항쟁이 20여년에 걸친 진실규명운동을 거쳐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항구적으로 존중될 영예로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면서 5·18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폭도들의 난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기까지 지난한 투쟁의 과정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그 흐름을 같이 하면서 미완의 항쟁으로 종결된 5·18항쟁을 복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5·18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고 5·18항쟁을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주장하는 5·18역사 왜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처음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5·18역사 왜곡은 대중강연, 출판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종편에 한정되지만 언론을 통해서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5·18역사 왜곡에 맞서 광주광역시와 5월 단체를 중심으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사 왜곡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5·18역사 왜곡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왜곡과 폄훼의 사례를 사실로 간주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서 인용하다 위의 사례처럼 명예훼손으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어린 학생까지 발생하고 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의 말처럼 5·18역사 왜곡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거짓이 사실인양 증폭되어 5·18의 진실이 왜곡되는 위협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5·18역사 왜곡의 기원과 실태를 조사한 5·18기념재단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5·18항쟁이 제도화되는 정도에 비례해 증가해 왔으며, 왜곡담론은 일정한 파급력을 갖춘 정치담론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왜곡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5·18역사 왜곡으로 인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부정되고 5·18의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진실담론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최근 활발하게 출간되는 왜곡 출판물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분석을 통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논리를 살펴보고 5·18 왜곡 담론이 갖는 논리적 모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2013년 발간된 『역사로서의 5·18』은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 5·18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 광주청문회에 드러난 5·18비화들, 5·18역사재판 법리의 모순’ 등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저자인 김대령은 『역사로서의 5·18』의 프롤로그를 통해 “광주사태의 발단 자체가 거짓 프로파간다의 결과였으며 이 제라도 5·18사건을 객관화하여 보다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광주사태 32주년은 그 자료들이 풍족하게 축적되면서 이제 유언비어 혹은 거짓의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 5·18의 참 이야기를 회복해야 할 때”로 5·18에 대한 기억 투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역사로서의 5·18』은 저자인 김대령이 ‘역사학도’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에 게재했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 발간한 책자로, 5·18역사 왜곡 사이트 및 일부 보수 인사들이 5·18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유포되는 5·18역사 왜곡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역사학도의 블로그 내용을 전제하거나 『역사로서의 5·18』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18역사 왜곡 담론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의 5·18역사 왜곡을 상징하는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5·18역사 왜곡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왜곡과 편향이 함의하고 있는 5·18을 둘러싼 새로운 담론투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역사로서의 5·18』의 담론 분석

1. 유언비어 담론

1) 전두환 관련 유언비어

『역사로서의 5·18』은 5·18사건을 객관화하여 5·18의 진실을 재조명하겠다고며 첫 번째 주제로 유언비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로서의 5·18』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5·18 성명서들은 헛소문과 유언비어로 채워져 있었으며 오로지 광주사태 선동을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5·18 성명서에 언급된 전두환 관련 내용을 유언비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 일간베스트 폐쇄 문제를 다룬 MBC ‘100분 토론’(2013.5.29.)에서 변희재는 『역사로서의 5·18』을 근거로 들면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사태로서 북한군 개입설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로서의 5·18』은 광주사태 당시 국민은 아직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동고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가능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두환 관련 악성 유언비어의 발원지는 광주사태를 선무하는 ‘북한 빼라들’이었다고 주장한다². 전두환에 대한 정보는 광주시민은 물론 심지어 전남대학교 재학생 시위를 선동하던 복적생 협의회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경우 5월 중순 총학생회가 갑자기 시위 구호에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추가하겠다고 하자 대립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당시 학생회 관계자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구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³.

〈학자추〉에서는 주로 정세 판단을 하였다. 학생회가 들어서고부터는 복적생 협의회와 총학생회 간에 약간의 대립이 있었다. 주 대립 요인이 정세판단에 따른 문제였는데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문제시되었다. 당시 복적생 협의회에서는 전두환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견은 4월부터 있었다. 그러나 뚜렷이 노선투쟁이나 사투 같은 것은 없었다(안진, 1988).

80년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활동에 관여했던 학생운동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두환 관련 유언비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말하는가를 강조함으로써 아무런 의구심 없이 이데올로기적 담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전형적인 ‘정당화 방식’이다(Reboul, 2003)⁴. 그런데 안진의

2 『역사로서의 5·18』에서 인용한 부분은 각주에 권수와 페이지로 표기한다. 1권 38~39쪽.

3 1권 62쪽.

4 루블은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발화행위의 표지를 지워버릴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이데올로기적 방식은 ‘권위에 호소하는 권위적 논거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03: 116).

증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술 내용 어디에서도 김대령의 주장처럼 '5월 중순' 총학생회가 갑자기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안진의 구술 내용은 정세 대응에 대한 학생회 조직 내부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복적생 협의회의 경우 전두환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전두환 관련 투쟁 구호를 채택하는데 있어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뚜렷한 노선투쟁이나 사상투쟁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경우 1979년 11월 10일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가 먼저 출범하고 1980년 4월 9일 학생회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가 정식 출범했는데 안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월부터는 이미 비상계엄의 확대를 예견하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0년 5월 2일 '계엄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위에서는 유신잔당의 구체적인 인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현확 총리를 거론하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신군부의 핵심적인 인물로 전두환을 5·18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5월 2일 시위는 전남대 총학생회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역사로서의 5·18』이 주장하는 '전두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의 소동'이라는 유언비어 담론의 정당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더구나 『역사로서의 5·18』은 '전두환을 모르는 자들의 소동'이라는 본인들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된 내용을 1권 2장에 기술하고 있다. 2장에서 5·18은 '사후의 저항운동'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그 근거로 전남대 학생들이 전두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⁵. 1980년 1월 전남대 교정에 배포된 유인물에 '반외세 투쟁'이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고 '우리의 반민족적인 적은 살인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매판 군부세력'이라는 문구가

5 1권 181쪽.

사용된 것을 봤을 때 5·18사태는 5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무장 폭동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1장 '유언비어의 잔치판'에서 5·18사태가 발생할 때까지는 전남대 학생운동권조차 전두환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기술이다.

이처럼 『역사로서의 5·18』에서 주장하는 전두환 관련 유언비어 답론은 그 정당화 논거가 대단히 빈약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과의 관련설로 논의를 확대해 북한 선무공작에 의한 5·18 발생론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로서의 5·18』은 전두환 관련 악성 유언비어의 근원지는 광주사태를 선무하는 북한 뼈라로서 이러한 내용은 탈북자 출신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를 보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⁶ 80년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관련자의 구술 자료를 통해 전두환 유언비어 답론을 주장했듯이 북한의 선무공작에 대한 주장 또한 북한 탈북자를 인용함으로써 권위적 논거에 따른 답론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로서의 5·18』은 강명도의 책자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하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역사로서의 5·18』은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를 거론하면서 전두환은 광주사태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던 강명도조차도 몰랐다는 사실과 대남선전 기관이 광주사태를 선동하는 뼈라를 만들어 살포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선동에 의해 광주사태가 발발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 따르면 대남 선전기관이 광주사태를 선동하는 뼈라를 만들어 살포한 것은 광주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다. 강명도는 '북에서 본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소주제에서 5·18을 전두환과 김일성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했다. 강명도는 80년

6 1권 39쪽.

5월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비서 김중린이 개입의 시기를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패배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지자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추기는 대남선전 뼈대를 만들어 살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강명도, 1995: 2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의 5·18』은 광주사태가 북한이 살포한 전두환 관련 유언비어를 담은 뼈대를 통해 발발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한편 강명도는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 자신은 5월 18일 처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노동신문은 전두환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의 경우 5월 18일 이전부터 유신잔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전두환을 언급한 기사를 수차례 게재한 사실이 있다. 필자가 통일부에 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5월 18일 이전인 5월 5일, 5월 12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전두환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노동신문 5월 5일자 기사의 경우 남한의 시위소식을 전하면서 “남조선 중앙정보부장 화형식”기사에 유신잔당으로 전두환을 언급하고 있다. 5월 12일자 노동신문은 “유신잔당들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했다”고 언급하는 등 전두환의 직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특히 5월 15일자 노동신문은 1면 헤드라인 제목으로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남한 대학생의 시위 구호를 그대로 싣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열고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체포하라고 외치는 등 기세를 올렸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전두환의 사임과 체포를 요구하는 남한 지역의 시위에 관한 내용은 5월 16일과 17일 노동신문의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5월 18일 이전에 이미 전두환에 대한 기사를 자주 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접할 수 있고 남한 관련 기사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전두환을 알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강명도가 노동신문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노동

신문이 북한에서 갖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5월 18일에서야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강명도의 서술은 잘못된 기억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노동신문에서 단순 시위가 아닌 사건의 의미로 5·18이 다뤄진 것은 5월 20일자 노동신문부터라는 점에서 또한 중앙TV의 영상자료의 경우 5월 18일 당일보다는 그 이후에 확보되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5월 18일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강명도의 서술도 날짜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전두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소동이라는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과 부당한 왜곡이 뒤섞여 있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2) 박관현 관련 유언비어

『역사로서의 5·18』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의 기폭제는 ‘박관현 사망설’ 유언비어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언비어가 확산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휴교령이 내린 5월 18일 아침 10시에 50여명의 전남대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 집결하였으나, 거기에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11시에 전남대생 100명 가량이 다시 광주역에 집결하여 30여분을 기다려도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커녕 학생회 간부들조차 코빼기도 안 보이자 모인 이유를 몰라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려 하던 순간에 누군가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큰소리로 외쳤다. 박관현은 그때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실을 확인을 해보지 않은 채 그 유언비어는 시민들에게까지 퍼져 나가면서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파출소들을 습격하는 시위군중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져 광주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였다(1권 69쪽).

『역사로서의 5·18』에서 기술하고 있는 1980년 5월 18일의 상황은 실제 사실로서 5월 18일의 상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소설 수준의 왜곡이다. 왜냐하면 5·18항쟁의 시발점이 되는 5월 18일 전대 정문의 상황에서 계엄군 관련 내용이 아예 누락되는 등 사실 관계를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교령에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이 잔혹하게 자행되면서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5·18항쟁으로 촉발되었다. 물론 역사적 평가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5월 18일 전대 정문 시위 진압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엄군의 주둔과 시위 진압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역사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 왜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0년 당시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보안사령부조차도 각 부대의 작전 일지를 종합해 발표한 군 작전 일지에서 5월 18일 상황에 대해 “09:30 전남대 정문에서 학교 점령 항의 학생 200여명 계엄군에 투석”이라고 기록하면서 계엄군의 전남대 주둔 사실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보안사령부, 1988). 그런데 『역사로서의 5·18』은 계엄군의 야만적 시위 진압에 대한 내용은 고사하고 5·17조치에 따른 계엄군의 주둔 및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사전 검속의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관현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이 전대 정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은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조치 때문이었다. 5월 18일 새벽 사전 검속을 겨우 모면한 박관현은 5월 18일 오후 학생회 간부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계엄당국의 검거를 피해 여수 돌산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역사로서의 5·18』은 박관현 사망설 유언비어의 악의적인 유포가 ‘광주사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5·18 당시 작성된 군 기록에서도 항쟁의 원인으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을 언급하고 있다. 5

월 19일 광주 시내 상황을 보고한 전교사 정보처 작전 일지에 따르면 “16일 이전 학생들 데모에는 냉담했으나 현재 계엄군에 의한 강력한 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의 데모에 동정 또는 호응하는 자가 많아 점차적으로 폭도화 되어 가고 있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전교사 정보처, 1980). 5·18 당시 광주지역을 관할했던 전교사의 보고에서도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고 보고하는 상황에서 유언비어에 의한 폭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유언비어 담론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역사로서의 5·18』은 ‘광주사태’가 유언비어에 의한 잔치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른바 ‘유언비어’들이 광주시민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 말들이 진실로 인식될 정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들었던 이른바 ‘유언비어’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신뢰를 보냈던 것은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실과 상당부분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즉 유언비어들이 사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주는 발화로 시민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운동권의 프로파간다의 결과가 아니라 계엄군의 만행을 체험한 시민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역사로서의 5·18』은 5월 18일 오전의 전남대학교 정문 상황은 물론 박관현 총학생회장 관련 내용들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박관현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것은 운동권의 개입이었으며, 박관현 사망설 또한 학생운동권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박관현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전남대 바깥에 있던 광주운동권이 부러먹을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당선시켰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윤한봉은 그때 학생이 아니었기에 박관현에 대해 잘 몰랐다. 복학

생회 회장 정동년이 추천하고 윤한봉이 동의하여 결정된 것이다(1권 72쪽).

윤한봉과 박관현의 관계에 있어 『역사로서의 5·18』은 윤한봉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관현에 대해 잘 몰랐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윤한봉은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가 있기 전인 1978년부터 박관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로서의 5·18』도 자주 인용했던 윤한봉의 구술 증언의 내용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윤한봉은 박관현과의 첫 만남과 그 인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78년 11월인가 12월인가 계림성당에서 쌀생산자대회를 했다고. 전국단위로 800명이 모였어. 1박 2일 이었어. 800명분 식사를 여섯끼나 하려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야, 광주운동권이 맡기로 했어 ... 민청세대들부터 싸그리 총동원 48명이드만, 동원해본게 ... 무슨 일을 하다보면 무슨 일이든지 고비라는 게 있어. 마무리처럼 힘든게 없거든,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거여. 그만큼 피곤해진 상황이니까 ... 골치 아팠어 뒷 마무리라는 게. 다라이 닦아서 전부 실어 날렸지. 고거하는데 딱 세명 남았어. 마지막에. 하나가 관현이여. 내가 떠볼라고 '가봐 행사장에 가봐, 가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고 그래. '기회는 또 있죠. 이거 마무리 하고 가야죠' 그러는 거야. 아마 석웅이가 그 때 소개했을 거야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었대. '어때요?' 내가 '거목이 될 것 같은데, 쓸만한데.' 내가 그때 관현이를 알게 되었지(윤한봉, 2003: 96).

윤한봉은 1978년 쌀생산자대회에 참여한 박관현의 성품을 보면서 박관현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박관현이 총학생회장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대 바깥에 있던 운동권이 부러먹기 편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윤한봉의 평가에서 드러나듯이 박관현이

갖고 있었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성품에 따른 결과였다. 또한 1980년 당시 윤한봉은 제적생 신분이었지만 전남대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었던 학생신분이었다. 그럼에도 『역사로서의 5·18』은 윤한봉이 박관현을 잘 모르는 것처럼 기술하면서 박관현과 윤한봉과의 관계는 축소시킨 반면 정동년과의 관계는 더 부각시키고 있다.⁷ 이는 80년 당시 5·18이 김대중-정동년-박관현으로 연결되는 내란음모사건이라는 신군부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980년 당시 전남합동수사단은 ‘광주사태 수사 결과’에서 “학생운동 차원에서 김대중을 돕자고 동조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동권 세력 장악이 필요한데 박관현이 학생들의 신망이 높으니 그를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시켜 배후조종하자고 결의하고 정동년으로부터 김대중 자금이라면서 선거 지원 자금을 받아 박관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으며, 4월 정동년, 윤한봉, 김상윤은 차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동년의 민중봉기론에 의한 정부 전복 방안을 듣고 이에 적극 찬동하는 한편 박관현을 조종 학생들의 시위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신군부의 발표와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이다.

특히 박관현 사망설 유언비어를 주장하면서 『역사로서의 5·18』은 박관현 사망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여수 돌산에서 북한 방송 듣고 있었던 박관현”⁸을 소재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지도부가 북한과 연계를 맺고 있는 불순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박관현의 도피를 도왔던 양강섭은 도피 과정 중에 언론통제로 광주소식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방송을 통해 그나마 광주소식을 들었다고 구술했다(1989).

그런데 『역사로서의 5·18』은 이러한 맥락을 생략한 채 다른 목적

7 3권 78쪽

8 1권 74쪽.

을 갖고 북한 방송을 들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만약 양강섭이 불순한 목적으로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면 이런 사실을 구술자료로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의 5·18』은 80년 당시 전남대 학생회 간부들이 북한과 연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5·18이 발생했다는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해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사건까지 북한과의 연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관련 담론

1)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침투설

『역사로서의 5·18』1권의 내용이 유언비어 담론을 통해 5·18에 불순세력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수준이었다면 2, 3, 4권의 내용은 저항주체였던 시민군이 사실은 북한과 연계된 운동권이었으며, 심지어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파견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기문란 행위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수많은 탈북자의 증언으로 5·18 무장봉기 주동자들은 광주 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침투한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광주사태 때 북한의 TV화면에 얼굴이 비쳐진 시민군 중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 얼굴을 알아본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 1명이 전 북한군 하사관 박행운의 부대원 광수이다. 탈북자들은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장갑차를 탈취해 몰고 다녔다고 증언한다(2권 203쪽).

5·18광주 인민봉기가 차질없이 무장폭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전적인 배경은 북조선에서 파견된 대남공작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먼저 있었고 남조선 지하조직들의 꾸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조선에서 내 집처럼 수없이 드나들면서 정보, 경찰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광주인민항쟁처럼 남조선 정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준 대형 사건에 공개적으로 참가해 보기는 처음이었다(2권 223쪽).

『역사로서의 5·18』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재인용한 것들이다. 2009년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발간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은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5·18 광주사태의 진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탈북자 16명의 증언을 담고 있다. 이들 탈북자들은 5·18 광주사태의 주범은 북한정권으로 5·18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군-간첩-친북세력이 민주화운동의 배후를 조종하여 국가전복을 노린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5·18 광주사태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은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자신들의 주장을 아무런 의구심 없이 수용시키기 위해 ‘권위에 대한 의존’ 즉 누가 말하는 가를 강조하는데 탈북자의 체험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북한군 침투설을 사실처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발화자들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권위적 논거를 갖기에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군 침투에 대한 발화에 있어 발화자들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에 기반한 발화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나 간접 경험을 전달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증언자로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직책과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의 발화 주체 및 내용 요약

증언자	북한에서의 직책(직위)	발화 주제 및 내용
증언 1	함경남도 금야군 고등중학교 교원	81년 아버지의 전언으로 아버지는 군당비서에게 들 었음
증언 2	함경남도 무산군 도시건설사업소 노동자, 제대군인	특수부대출신의 '평양사자' 라는 제대군인의 일기와 평 양에서 내려온 신원미상의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
증언 3	항공사령부 소속 여성고사포중대 중대장	아버지한테 들었음
증언 4	함경남도 함흥시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사무원	자유북한군인연합회 회원들의 말, 이종윤 목사의 설 교 내용을 들음
증언 5	박행운(북한군 하사관)	군부대에 같이 근무했던 성근이가 들었던 말을 전함
증언 6	공장 지배인	본인이 들었던 소문의 내용
증언 7	서해안 방어부대 군관(중위)	군단지휘부 조직부지도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증언 8	함경북도 청진시(가정주부)	대남 공작원 출신의 외삼촌 아줌마
증언 9	문전제련소 노동자	직장동료 및 당위원회 지도원
증언10	러시아 벌목공	직장장으로 일할 때 창고장으로부터 들음
증언11	조선작가동맹 작가	80년 당시 아버지와 어른들의 대화 및 고향 선배
증언12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친구인 김영호의 아버지가 광주봉기 때 임무를 수행 하던 중 전사하여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고 들음
증언13	3.13공장 지배인	친구로부터 들음
증언14	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함경북도 소재 청진시 천만사 마루에는 광주사태 당시 남조선에 나갔다가 죽은 공화국 영웅들의 묘지가 있음
증언15	남포시 농촌경영위원회 지도원	당위원회 조직비서한테 들음
증언16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	광주사태에 참가했던 북한군 특수부대 중령출신 탈북 자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메일을 2008년 12월 받았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에서 북한
군 침투를 주장하는 증언자 16명 중에서 80년 당시 광주에 직접 파견

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물론 파견된 부대나 부대원을 지원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도 없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본인의 체험이 아니라 다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인데 그것마저도 1차 전언이 아닌 2, 3차 전언에 불과하다. 특히 자유북한군인연합의 대표로 북한군 침투설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임천용회장조차도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에 근거해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다. 5·18역사 왜곡사이트에서 북한군 침투설을 집대성한 자료로 평가받으면서 북한군 침투설의 1차 자료로 늘 인용되고 있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탈북자 증언에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증언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의 5·18』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광주에 파견되었던 탈북자의 증언인 것처럼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로서의 5·18』은 ‘전 함경남도 무산군 노동자’의 증언을 전제하면서 “남조선 정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준 대형사건에 공개적으로 참가해보기는 처음이었다”라고 명기함으로써 직접 참여한 사람의 증언으로 기술하고 있다⁹⁾. 그러나 ‘전 함경남도 무산군 노동자’는 광주에 파견된 경험은 고사하고 관련부대에 근무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역사로서의 5·18』에서 인용한 ‘전 함경남도 무산군 노동자’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증언자 2’와 동일한 인물이다. 『역사로서의 5·18』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증언자 2’의 증언 내용을 재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증언자 2’의 증언 내용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평양사자’로 일컬어지는 제대 군인의 일기 내용과 신원미상의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본인의 실제 참여 경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의 5·18』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증언 내용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만을 전제 하면서 실제 참여자의 발화처럼 구성했다. 북한군 침투 담론에 대한 발화의 권위적 논거를 보증하기 위해 실제 참여자의 발화인 것처럼 조작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발화자를 조작해서라도 실제 참여자의 발화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재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탈북자의 발화라는 권위만큼 위력적이 수단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서는 북한군 침투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광주 침투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을 소개한 임천용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서도 북한군 침투설은 신뢰가 가지 않는 주장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정보기관에서 두 번 정도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당사자¹⁰의 집으로 찾아가서 본인을 만나보았지만 그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당사자는 5·18광주사태가 끝나고 북한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산악을 이용해 철수하였고, 분계선을 넘는 과정은 철책선 밑을 파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남한쪽의 철책선은 전구간이 70cm-1m의 시멘트 콘크리트에 구축되어 있어 밑을 파고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광주사태 현장을 떠나서 산악을 이용해서 분계선 까지 가는 시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생각을 남한에 내려왔다가 체포된 간첩출신들에게 문의한 결과 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었다(임천용, 2009: 412).

10 임천용의 증언에서 광주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 특수부대 중령출신의 탈북자

자유북한군인연합회장 임천용의 발언은 북한군 침투설을 불가능한 일로 판단한 정보기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사실(fact)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임천용에 따르면 북한군 침투설이 처음 제기될 당시는 노무현 정권으로 이른바 친북좌파 정권의 성격상 북한군 침투설을 별로 중요한 사실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들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매우 실망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결국 북한군 침투설은 진보정권인 노무현정권은 물론 보수정권인 이명박정권에서도 검증은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탈북자들의 증언에 근거해 주장하는 북한군 침투설은 신뢰할 만한 주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역사로서의 5·18』이 탈북자들의 주장을 통해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탈북자의 5·18에 대한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로서의 5·18』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급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¹¹ 탈북자 강명도¹²의 증언에 따르면 5·18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명도는 5·18을 전두환과 김일성의 대결로 다루고 있는데, 북한이 침투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남조선에 파견된 간첩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마

11 1권 39쪽.

12 1994년 7월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강명도는 김일성의 외사촌 친척이자 강성산 총리의 사위로 이른바 로열패밀리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증언록을 발간한 중앙일보의 추천사에 따르면 평양 권력층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그의 증언은 김정일시대를 맞아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생생한 리포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 김종린은 3호청사의 전 부서에 비상을 걸었다. 김종린은 당시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대남비서였다. ... 그러나 문제는 김종린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 김종린이 정세판단서를 김일성에게 올려 수표(재가)를 받을 때 쯤에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진압국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 그의 말에 따르면 사태가 터지자 김종린은 모든 대남 공작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 명령을 받은 수십명의 정예 공작원들은 남조선 침투에 대비해 쾌속정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미 유서를 써놓고 쾌속정에 무기를 옮겨 싣고 있는 공작원들에게 돌연 작전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김종린이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엄군의 광주 도청 진압이 북한의 예상보다 빨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어쨌든 광주민주화운동을 놓고 진행된 김일성 대 전두환의 1라운드인 김일성의 패배로 끝났다(강명도, 1995: 238~241).

북한 권력 상층부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강명도가 1995년 발간한 수기를 통해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고 기록한 반면 2009년 발간된 『화려한 사극극의 실제 5·18』은 5·18을 광주사태로 폄하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군의 개입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탈북자들의 발화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5·18에 대한 북한군의 침투설은 탈북자들의 발화에서도 일치된 주장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더 이상 권위적 논거를 갖기 힘든 이데올로기적 담화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과 연계된 불순세력의 난동설

『역사로서의 5·18』은 “5·18은 광주운동권 코뮌주의자들이 광주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니 북한에서 손성모 등을 광주로 보내주고, 어떤 세력이 전라도 38개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시민군을

조직해 주고 전남도청을 점령해 주었던 사건이다”고 기술하면서¹³ 광주지역운동권들은 코민주의자이자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민주의 혁명가들과 남민전이 광주사태 주동세력이었다. 광주운동권 윤한봉은 19일로 예정된 무장봉기 준비를 총지휘하고 있었고, 김남주와 김상운은 코민주의 혁명가들이었고 구국청년학생회는 남민전 조직이었다(4권 52쪽). 윤한봉의 남민전 동지들 중에는 김남주뿐만 아니라 김정길도 있었다(4권 59쪽).

윤한봉의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수학적 논리가 도출된다. … 탈북자의 증언에서 윤한봉의 조직은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소한 윤한봉과 북한사이에는 간접적인 커넥션은 있었다. 윤한봉은 1982년 미국에 밀항하자마자 재미교포들을 방북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1989년 평양축전을 준비하면서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를 은밀히 방북시킨 인물도 윤한봉이었다. … 이처럼 미국망명시절의 윤한봉은 북한의 대남공작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 그런데 그의 후견인들 중에는 빨치산 출신 활동가 박현재와 장두석이 있었다. 북측과 연락을 취하는 장두석의 중복활동은 평생 지속되었다. 그리고 윤한봉을 움직이는 두 인물이 박현재와 장두석이었다(1권 184~185쪽).

『역사로서의 5·18』은 북한군 개입설이 권위적 논거를 가질 수 없는 허구적 담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이 북한과 연계된 광주지역 운동권 세력들의 요청이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과는 달리 윤한봉은 남민전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주장도 허구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사당국의 끊임없는 감시는 물론 수차례 투

13 3권 338쪽.

옥까지 당했던 윤한봉이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처럼 북한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면 수사당국이 그대로 방관했을 리는 만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색깔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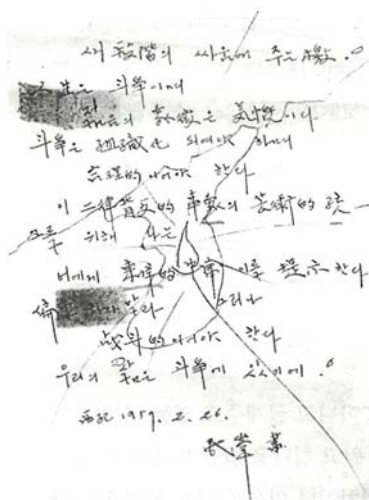
더구나 빨치산 활동경력이 있는 박현채나 장두석을 윤한봉의 후견인이자 윤한봉을 움직이는 인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색깔론의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역사로서의 5·18』은 박현채를 왕년의 빨치산으로 호명하면서, 대한민국은 왕년의 빨치산 박현채를 국민으로 받아주었으나 그의 가슴은 대한민국으로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빨치산이었으며 배후에 숨어 운동권을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빨치산 활동을 지속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¹⁴. 『역사로서의 5·18』은 박현채가 빨치산 활동을 지속한 중북좌파라는 사실은 박현채가 친구인 김경추에게 선물한 책 표지 뒷면에 김일성을 위해 중용을 지키라는 격문을 써준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1957년 2월 서울대 상대학생이었던 박현채는 고등학교 졸업이 늦어진 김경추에게 책 한권을 선물했다. 채근담이었다...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야 김경추가 열어 본 책 표지 뒷면에는 김일성을 위해 중용을 지키라는 박현채의 격문이 있었다. “새 단계의 싸움에 주는 격문! 인생은 투쟁이며 젊음의 상징은 기대이다. 투쟁은 조직화되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이울배반적 사상의 예술적 통일! 그를 김일성을 위해 나는 너에게 동양적 중용, 이를 제시한다. 편중하지 마라. 그러나 전투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투쟁이 있기에! 서기1957.2.26. 민봉서”(3권 192쪽).

위 사례는 『역사로서의 5·18』에서 박현채가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증거의 핵심적인 사례이자 박현채와 연관된

14 3권 192쪽.

사람들이 중복좌파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러나 『역사로서의 5·18』은 박현채의 중복활동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예시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¹⁵. 그래서 박현채 관련 자료를 하나 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어렵게 출처를 확인한 결과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확인되었다. 아래는 『역사로서의 5·18』에서 언급한 박현채 관련 ‘채근담’ 메모의 실제 내용이다.



새 단계의 싸움에 주는 격(激)!
 인생은 투쟁이며
 젊음의 상징은 기개이다.
 투쟁은 의식화되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이율배반적 사안의 예술적 통일!
 그를 위해 나는
 너에게 동양적 중용, 이를 제시한다
 편중하지 말라
 그러나
 전투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투쟁에 있기에!
 서기 1957. 2. 26.
 민봉(民峯) 서(書)

〈그림 1〉 『아! 박현채』에 수록된 ‘채근담’ 표지의 실제 메모(2006: 224)

위 내용은 ‘고 박현채 10주기 추모집·전집 발간위원회’에서 발간한 『아! 박현채』에서 박현채의 친구인 이춘형이 기술한 “유달리 정이 많

15 『역사로서의 5·18』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5·18자료는 물론 운동권들의 구술 자료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꼼꼼하게 분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료의 출처와 검색 시간까지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박현채의 중복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있던 친구여”에 실린 내용이다(2006: 224). 그런데 위 내용 어디에도 『역사로서의 5·18』에서 인용한 ‘김일성을 위해’ 라는 문구는 찾을 수가 없다. 또한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이 격문을 숨겨뒀다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김일성을 위해’ 라는 문구는 박현채가 이른바 ‘중복좌파’임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감췄다는 것은 김대중도 중복좌파라는 연상된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원자료(原資料)에는 없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역사로서의 5·18』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김일성과 김대중 관련 문구를 삽입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료를 조작해서라도 『역사로서의 5·18』이 얻고자 했던 것은 박현채는 물론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 운동권을 불순세력 즉 중복좌파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남로당 및 빨치산 2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포교육만 받은 자들에게서 민주주의 사상이 싹트고 자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의 머릿속은 생각이 비뚤어지게 하는 좌익 이념들로 가득 차 있었다(4권 62쪽).

자료 조작을 통해 박현채를 중복좌파 빨치산으로 규정하고 채근담의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김대중까지 언급함으로써 김대중도 중복좌파의 한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채근담 사례에 앞서 김대중대통령의 논문과 책의 대필자로 박현채를 지목하면서 둘 사이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인지시켜왔다는 점에서 박현채가 중복좌파라는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도 중복좌파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1980년 당시 김대중은 사상이 불순한 정치인이라는 신

군부의 논리의 연장으로서 80년대의 신군부의 주장을 2000년대까지 퇴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로서의 5·18』은 5·18과 연관된 광주지역 운동세력이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세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5·18 당시 북한과 연계된 불순세력의 난동 사례로 교도소 습격사건과 남파간첩 손성모 호위를 위한 증심사(학동)사수 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도소 근처에서의 총격전은 빨치산과 정치범들을 구출하기 위한 습격 투쟁이고, 학동 지역에서의 총격전은 남파간첩 손성모가 은신하고 있던 증심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빨치산 류낙진(문근영의 외조부)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전사 등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던 광주교도소 습격을 민주화 운동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적을 것이므로 광주청문회때부터 5·18측이 완강히 부인해 온 사실이었다(2권 107쪽).

광주시민이 아니면서 광주시민인 척 위장하고 광주사태에 개입한 외지인들 중에는 간첩 손성모 등 불순세력도 있었다(1권 135쪽). 김대중정부가 2000년에 복송한 간첩 손성모도 광주사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짜스님 신분으로 광주에 침투해 있었다. 광주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간첩 손성모가 광주에서 공작활동을 하고 있던 5월 17일 왕년의 빨치산들이 YWCA강연회를 빙자하여 광주로 모여들었다(2권 143쪽). 21일 오후 무장 시민군이 전남 도청을 점령한 후 시민군이 가장 빨리 배치된 곳이 증심사였다. 도대체 절에 시민군이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단지 북한 간첩 손성모를 경호해주기 위함뿐이었던가?(2권 169쪽).

그러나 『역사로서의 5·18』의 주장과는 달리 이 두 지역은 광주의 광으로 빠져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주교도소가 위치한 문흥동은 담양, 곡성, 순천, 여수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가 위치한 길목이고, 중심사가 위치한 학동지역은 화순, 나주, 장흥방면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특히 5·18 당시 군부는 5월 21일 육군참모총장 지시를 통해 “전국 확산 방지, 선무활동으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지휘체제 일원화로 군 사기 진작, 교도소 끝까지 방호, 광주 외곽도로망 차단, 시민자제촉구 선무활동” 등 6가지 사항을 지시하면서(군사연구실, 1980) 광주 외곽교통망의 철저한 차단을 시도했다. 따라서 광주외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광주 바깥으로 나가려는 시민군과 이를 차단하려는 계엄군 사이에 빈번한 교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교도소 인근과 학동지역에서의 교전 또한 이런 사례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의 5·18』은 불순세력과의 연계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Ⅲ. 맺음말

『역사로서의 5·18』은 5·18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통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밝힌 실제적 진실은 과거 신군부의 5·18담론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했으며, 객관화 작업의 상당부분은 왜곡과 조작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역사로서의 5·18』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5·18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자료 분석의 대부분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자료의 맥락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조작까지 하고 있었다.

『역사로서의 5·18』은 5·18의 실제적 진실로 ‘북한과 연계한 불순분자들의 거짓 선동과 북한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왜곡하고 있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권위적 논거를 보충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발화를

제시하지만 80년 당시 실제 광주에 파견된 탈북자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경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처럼 조작하고 있었다. 또한 광주지역 운동권은 북한과 연계된 불순세력이라는 주장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박현채에 대한 자료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김일성 문구와 김대중 관련 내용을 조작해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역사로서의 5·18』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5·18에 대한 역사 해석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대한 조작을 통해 5·18을 왜곡·편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 해석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5·18역사 해석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서로 다른 관점의 문제는 공론장의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해석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자신의 논거를 위해 조작·왜곡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역사 해석을 가장해 관련 자료를 조작·왜곡하고, 조작·왜곡된 자료에 기반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편향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특히 『역사로서의 5·18』의 5·18 관련 자료의 조작과 왜곡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적 심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로서의 5·18』이 조작·왜곡하고 있는 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지 역사해석을 둘러싼 담론투쟁의 영역은 아닐 것이다.

조작과 왜곡에 기반한 『역사로서의 5·18』이 5·18에 대한 새로운 역사해석으로 간주되고 5·18 편향의 근거로 버젓이 인용되는 현실은 5·18역사 해석을 둘러싼 담론 투쟁이 학문적 대응은 물론 실천 활동까지 병행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거짓이 사실인양 증폭되어 5·18의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

영역의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5·18역사 왜곡의 텍스트 분석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5·18역사 왜곡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의 측면 5·18역사 왜곡 주체 형성의 동인 및 정치적 배경, 왜곡 집단의 특징 및 관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정치적 함의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명도 1995.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중앙일보사.
- 고 박현재 10주기 추모집·전집 발간위원회 엮음. 2006. 『아! 박현재』. 해밀.
- 고 박현재 10주기 추모집·전집 발간위원회 엮음. 2006. 『박현재 전집(전7권)』. 해밀.
- 광주매일 정사 5·18 특별취재반. 1995. 『정사 5·18』. 사회평론.
- 김대령. 2013. 『역사로서의 5·18』. 비봉출판사.
- 김삼웅. 2012. 『박현재 평전』. 한겨레출판사.
- 김희송. 2013.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제13권 3호: 5~36.
- 나간채. 2013.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 한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정신선양운동본부. 1997. 『12·12, 5·18 실록』.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1. 『양서협동조합운동』. 대성.
- 박관현열사추모사업회 편. 임낙평 지음. 1987. 『광주의 녀 박관현』. 사계절.
- 오승용·한선·유경남. 2012.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 윤동수. 2003. 『윤상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윤영규. 1995. 『멀리보고 가는 길』. 사회문화원.
- 윤한봉. 1996. 『운동화와 동가방』. 한마당.
- _____. 2009. 『윤한봉 회고록 망명』. 한마당.

-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광명기획.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박호재·임낙평 정리. 1991. 『윤상원평전 들불의 초상』. 풀빛.
- 전남대학교5·18연구소, 나간채·이명규 엮음. 2002. 『5,18항쟁 증언자료집Ⅰ』. 전남대학교출판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나간채·이명규 엮음. 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Ⅱ』. 전남대학교출판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박병기 엮음. 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출판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양현·강현정 엮음. 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Ⅳ』. 전남대학교출판부.
- 조희연. 2009. “급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 최정기. 2002.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 -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창간호.
- 최정운. 2012.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황석영·전남사회운동협의회·정동년 외 321인·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6.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 5·18기념재단. 전용호·임낙평 정리. 1999. 『윤상원 미완의 일기』. 금호문화.
- 5·18기념재단. 2006.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1, 2』. 5·18기념재단.
- 미셸 푸코(이정우 역). 2002.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출판부.
- 사라 밀즈(김부용 역). 2001. 『담론』. 인간사랑.
- 올리비에 루블(홍재성·권오룡 역). 2003.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로동신문」 1980년 5월 1일~5월 30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군 자료〉

- 군사연구실. 1980. 「첨부#3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 군사연구실. 1980. 「첨부#7 광주사태수습개요」.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사태 관련자 처리방침 발표 여론」. 『383-1980-100』.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 『383-1980-100』.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 『383-1980-100』.
- 보안사령부. 1980. 「날조된 악성 유언비어」. 『383-1980-100』.
- 보안사령부. 1988. 「광주사태 발발 원인과 배경」.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과잉진압설」.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김대중내란음모사건」.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학생, 시민의 과격시위 내용」.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발포에 관한 내용」.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유언비어 문제」.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사태성격규정」.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사후대책」.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총괄정리」.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쟁점별 대응논리」.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김대중내란음모 및 광주사태」. 『383-1988-5』.
- 보안사령부. 1988. 「사전계획설」. 『383-1988-5』.
- 육군정보참모. 1980. 「대외홍보 자료 작성 동정」. 『383-1980-103』.
- 전교사 정보처. 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 일지」. 『383-1980-93』.

ABSTRACT

A Study on the 5·18 History Distor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5·18 as a history』 -

Kim, Hee-Song

(Research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18 Institute)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5·18 as a history』, examined the logic and basis of the 5·18 history distortion and closely looked into the logical discrepancy of discourse which 5·18 history distortion has maintained. The 『5·18 as a history』, since its publication in 2013, has been in the spotlight as a book having presented a new milestone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5·18 history on the internet website such as "Daily Best" which is notorious for the distortion of 5·18 history. However, even though the 『5·18 as a history』 asserted it would look into the truth through the objectification work on 5·18, the basis of its objectification was mere reorganization of 5·18 discourse which the new military authority asserted in the 1980's. Especially, almost every resources the 『5·18 as a history』 presented as an evidence of the 5·18 uprising, stipulating that the 5·18 is an uprising occurred due to the intervention of North Korean Military and the pacification work of the impure element connected with the North Korea, was just tricky fabrication or unauthentic ones. The problem of the distorted discourse on 5·18 history including 『5·18 as a history』 is not the difference itself between the view of interpretation on the 5·18 as a history, but the reality that, through fabrication of the resources, it has been distorting and denouncing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5·18 uprising.

Key Words : 5·18 Uprising, 5·18 discourse, 5·18 history distortion

